

지역 소식통

정읍시, 주민등록증 발급 찾아가는 서비스 큰 호응

정읍시는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지난 16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상반기에도 3개 학교에서 50건의 발급을 지원한 바 있는 시는 하반기에도 정읍여자고등학교, 인산고등학교, 글로벌혁신고등학교를 방문해 총 39건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완료하며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했다.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인 고등학생들은 학업 일정상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발급 신청이 늦어질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우려가 있다. 이에 시는 학생들이 과태료 처분을 피하고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발급 서비스를 마련했다.

시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팀을 구성해 10일 정읍여고를 시작으로 각 학교를 순차 방문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주민센터서 발급

이제 어업인들은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전국 모든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정읍시에 따르면 그동안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행정안전부가 허디서나 민원처리제에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추가하며 불편을 덜게 됐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 취약계층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민원인들은 이번 지침 개정에 원거리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큰 편의를 누리게 됐다.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허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전국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 토지 매입

모나용평, 100억원 규모... 중대형 콘도·골프장 2028년 완공 목표

고창군과 모나용평(용평리조트)이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

29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시 용산센트럴파크에서 '고창 종합테마파크 토지매입 계약 체결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신달순 모나용평 대표, 고창군과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으로 모나용평은 심원면 만물리에 위치한 고창군 소유의 토지 6만6100㎡(1만9995평)를 100억원에 매입했다. 내년 하반기 착공과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중대형급 휴양형 콘도미니엄 471실을 비롯해 700석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변 염전부지를 활용



하에 18홀 대중형 골프장을 함께 건설할 예정이다.

특히 고창군이 추진중인 국제카누슬라럼 경기장 생태갯벌플랫폼 등 다양한 레저시설이 심원염전부지를 중심으로 지리할 예정이다.

군과 모나용평은 서해인의 자연경관

과 어울리는 체류형 생태 복합 레저관광지를 조성해 호남권의 대표적인 해양생태관광지로 거듭나자는 포부다.

신달순 모나용평 대표는 "생태관광 콘텐츠 사업의 성공 경험이 있는 만큼, 고창 종합테마파크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보유 역량과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겠다"며 "서해인의 아름다운 노을과 생태 갯벌을 테마로 한 다양한 복합 체험 콘텐츠 구상을 마쳤으며,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종합테마파크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일곱가지를 보유한 1천만 관광도시 고창군이 자랑하는 최고의 명품 해양관광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은 29일 정읍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학교밖 늘봄기관 선정을 위한 사전 설명회를 열었다.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할 것"

정읍교육지원청, 2025년 학교밖 늘봄기관 선정 사전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은 29일 정읍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학교밖 늘봄기관 선정을 위한 사전 설명회를 열었다.

'학교밖 늘봄 기관이란, 교육 경험의 장소를 학교 밖으로 확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초등 저학년의 돌봄 공백으로 인한 학부모 경력 단절 사교육비 증가를 방지하고, 방과 후에도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돌봄 기관을 뜻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학교밖 늘봄 운영 취지와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학교밖 늘봄 기관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유관 단체들의 공급증을 해소하였다.

신청서 제출은 11월 6일 오후 5시까지이고, 정읍교육지원청 학교밖 늘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기관에서는 2025년 1월부터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내 학생들이 마을에서 따뜻한 돌봄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했고, 정읍교육지원청은 양질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2회 부안 줄포 우위니 마을축제 11월 2일 개최

마을공동체 회복·예코 정원 도시 조성 기반 마련

부안군 줄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오는 11월 2일 오전 11시 줄포다목적 체육센터에서 참채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예코 정원 도시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제2회 줄포 우위니 마을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줄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기획하고 줄포면 도시재생 전략구역 내 9개 마을의 주민들이 힘을 보태 진행될 예정이며, 작년 1회 우위니 축제에 이어 부안 ESG 프로젝트의 작은 실천으로 친환경 문화축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먼저 ESG 실천 상품 만들기 체험부스, ESG 친환경 분리수거 실천 체험

부스, 리사이클링-리폼·수선 원데이 클래스 등 부안 ESG 프로젝트를 다양한 방식으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부스 운영부터 짬뽕공예, 아로마테라피, 캐릭터 페이스 페인팅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체험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무대에서 어우러져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각 마을별로 준비하는 줄포 대표 먹거리 부스와 베트남, 라오스 등 다문화 먹거리 부스를 운영해 교육과 환경, 재미 먹는 즐거움까지 오감만족의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줄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지난 2022년 설립된 이후로 예코 정원 도시 조성을 위해 부안군과 협력하고 있으며 생태분과, 운영분과를 운영하여 리사이클링 교육, 우위니 축제 개최, 골목 정원 조성 등 줄포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줄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김익성 위원장은 "줄포면의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여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부안군과 부안군의회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줄포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성진 기자

고창군, '장애인일자리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고창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4 장애인일자리사업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고창군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 현재 배치기관 57개소 71명의 장애인이 복지서비스 지원, 문화예술, 바리스타, 장애인주차장 제도 요원 등에 참여하고 있다.

군은 18세이상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지원으로 자립생



활기반 구축 운영에 힘쓰고 있다.

특히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이 바리스타, 미술, 음악, 재능이 있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일자리 사업

을 연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의 새로운 직무 연계에 이바지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아 전북자치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장애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장애인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하며 더불어 살아가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비상소화장치 등에 사물주소판 설치

정읍시는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다중이용시설물 188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정읍시는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다중이용 시설물 188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사물주소판은 건물이 아닌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으로, 주변에 건물이 없는 경우 위치 파악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고 위급 상황 시 구급활동 지원을 위한 주소정보시설이다.

이번에 설치된 사물주소판은 공공전화, 비상소화장치, 자전거거차대, 우체통, 무더위쉼터 등으로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에 배치됐다. 사물주소판에는 QR코드가 삽입돼 있어 긴급 상황 시 이를 스캔하여 현재 위치를 119에 문자로 전송할 수 있다.

이하수 시장은 "사물주소판은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읍시의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설물에 사물주소판을 추가 설치해 긴급 상황에서의 위치 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